

# 김이강 서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연임

제6대 이어 제7대 상임회장 추대...2028년까지 2년 임기  
주민주권 실현·회원도시 연대 강화로 새로운 10년 이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이 발표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연임으로 주민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를 이어간다.

서구는 9월30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김 청장이 제6대에 이어 제7대 상임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전국 34개(광역시 3개, 기초 31개)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김이강 상임회장은 민선 8기 동안 축적한 생활정부 혁

신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상임회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때 진짜 주민주권이 시작된다”며 “지난 10년의 협의회 성과를 발판 삼아 지방정부가 주민의 결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마을자치와 주민주권을 주제로 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마을자치와 사회연대경제의 지방정부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김이강 서구청장은 ‘새로운 주민주권시대’

우승희 영암군수는 ‘마을이 브랜드가 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배귀희 송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주민참여가 실제 마을의 삶과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회원도시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색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도시 간 연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 남구 곳곳이 축제장 ‘동민 한마음 축제’ 활짝

10월 8~24일까지 화합·소통 한마당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에서 10월 한달여간 주민끼리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연달아 펼쳐진다.

남구는 1일 “관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 간 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와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는 동민 한마음 축제를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17개동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민 한마음 축제는 각 동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구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

별 행사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동별로 어르신 공경 및 효행을 실천한 주민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오는 8일 대촌동을 시작으로 9일에는 방림1동에서, 10일에는 주월1동과 효덕동 관내에서 흥겨운 무대가 열린다.

15일에는 월산5동에서 신명 나는 웃음소리를 만날 수 있으며, 16일에는 월산4동과 주월2동, 백운1동에서 신바람이 나는 축제가 펼쳐진다.

가을이 절정인 17일에는 송암동과 방림2동, 봉선1동, 월산동, 백운2동에서, 24일에는 봉선2동과 양림동, 진월동, 사직동에서 각각 동민

한마음 축제가 열린다. 관내 17개동 주민들은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해 장기자랑을 비롯해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함께하면서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도 나눌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이웃 간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도 마련되기 때문에 동민 한마음 축제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웃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우리 동네는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며 “동민 한마음 축제가 주민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이웃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각 동별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직

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민 장기자랑과 초청 공연 등 흥겨운 무대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평소 이웃과 만날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 등도 축제 준비에 힘을 보태며 행사를 함께 만들어간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만큼 마을마다 각기 다른 특색 있는 축제가 펼쳐질 전망이다. 남구는 행사장 안전관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한마음 축제에서 주민들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소통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제공

## 제26회 곡성심청

# 어린이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6.10.8(목) - 11(일) 곡성심진강기차마을

